

야 캠프 아웃 디스 파이어

김방주



2020년 11월 24일 (화) 오전 2:05, Hyo Min Gweon <[hmgweon@gmail.com](mailto:hmgweon@gmail.com)>님이 작성:

오늘 작업 미팅 하고 나서부터 바로 유튜브 프리미엄을 결제했어. 음악을 한동안 많이 듣지 않았던건 올해 3월부터 매월 지출 내역을 아끼느라 스포티파이 멤버십을 그만두면서부터였어. 그깟 10유로가 뭐라고. 매번 광고에 시달리다가 정말 오랜만에 방해물 없이 음악을 들으니까 새삼 자유롭다. 너한테 또 고맙네, 이런 프로젝트를 같이 하자고 해서. 너랑 이야기 한 후에, 뜬금없이 네덜란드 해안선을 따라 운전해 볼 수 있나 싶어서 구글맵을 켜봤어. 역시나 델타 지역이라, 해안선이 한국처럼 일직선으로 뻗어있지 않아.

이게 이상적인 드라이빙 루트겠지만, 국도랑 고속도로가 섞여서 실제로 이런 드라이빙을 할 순 없겠지. 하루안에 해안선의 일몰과 일출을 다 볼 수 있다면 한국은 신기한 나라같다. 헤이그에 살 때 바닷가에 서서 태양이 너머 런던으로 가는 길은 어떨까 상상했던 생각도 났고.

그리고보니 네가 흥미로워 할만한 게 생각났는데, Almanak (영어로는 Almanac)이라고 매년 나오는 연감같은 게 있거든, 한 해의 날씨, 천문 정보, 씨 뿌리는 시기, 밀물 썰물 같은 정보들을 한데 모은 손바닥만한 책이야. 예전에 한 권 샀던 게 있는데 아마 창고에 있는 것 같아. 예전에 브런치에 썼던 글에 소개해놔어. <https://brunch.co.kr/@minvanderplus/23> 만약 흥미있으면 여기서 구해서 한국에 보내줄게!

항상 화이팅이야! 민선한테 안부 전해주고!



2020년 11월 24일 (화) 오후 3:19, **bang joo Kim**

<[juaobang@gmail.com](mailto:juaobang@gmail.com)>님이 작성:

어제 새벽에 잠이 안와서 뒤척이다가 누나의 메일을 확인하고, 페이스 타임으로 저녁에 나눴던 대화가 다시 생각났어요. 누나가 있는 곳, 얼마전까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갈 수 있다고 믿었던 물리적 거리가 떠올랐어요. 어제 나눴던 대화와 같이, 그 물리적 거리를 상징하는 이미지나 냄새, 피부에 와닿는 습도도 자연스럽게 생각났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뜬금없는 작은 하천이 즐비한, 안개 자욱한 Maastricht 거리.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창 너머로 보았던 풍경이 마치 스크린을 통해 바라본 것과 같다는 착각이 들었구요.

네덜란드의 구글맵을 봐서인지 노르웨이 피오르드 지형을 걷는 상상을 하다가 겨우 잠이 들었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지만 이상적으로, 걸기 좋은 곳'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나봐요. 아니면 누나가 브런치에 묘사 해놓은 풍경과 사진들 때문일지도 모르겠네요. 색온도가 확연히 달랐거든요.

아무튼 서로 가지 못하는 곳에 대한 열망이 있다는게 재밌네요. 시간 있어도 막상 가지도 않으면서.. ㅎㅎ 누나의 메일을 통해서 상상해 볼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웠어요. 어쩌면 이번 작업에서 하고 싶은게 이런게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Almanac은 한국에도 판매처가 있네요. 예전 Almanac은 마치 연금술의 비밀이 담겨 있을 듯한 표지를 갖고있네요. 역시 농업, 어업 같이 날씨와 밀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현자의 돌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르겠네요. <https://www.badatime.com/> 어제 보내드린 이 사이트도 어업 종사자들을 위한 사이트 같이 보여요. 생각보다 훨씬 자세한 예측정보가 있어서 한참 들여다 보았어요.

다시 한 번 협업을 수락해줘서 고마워요. 이미 좋네요 ㅎㅎ 곧 페이스 타임으로 민선과 같이 통화합시다!



2020년 11월 29일 (일) 오후 10:42, bang joo Kim

<juaobang@gmail.com>님이 작성:

어제는 인천에 있는 월미도에 가서 일몰을 촬영해봤어요.

해안선이 보이는 곳에서는 이맘때 구름이 많다고 해요. 잘 몰랐는데 실제로 보니깐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많이 구름이 있었어요. 구체적인 이미지를 누나에게 보내는 것이 주저되지만 어차피 매일 달라질 풍경이라 살짝 공유해보아요. 자동차의 후방에 장착해서 찍은 영상중 캡쳐 분이에요. 오즈모 액션과 고프로 히어로8으로 찍었어요. 제 눈에는 고프로가 선명하긴 하지만, 조금 인위적인 색감인 것 같아서 세부조정을 하고 있어요. 어제는 5시 16분이 인천 기준 일몰 시각이라 그때 찍힌 사진을 보내요. 아! 그때 차에서는 underworld of louisiana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커플이 베를린에 살고 있는데 엇그제부터 라디오를 만들었다고 사이트를 공유해줬어요. 그 친구들이 공유한 음악을 듣고 있으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작업 생각이 났어요. 누나에게도 공유해주고 싶어서 사이트 보내요.

<http://oolongradio.com/>

그리고 또! ㅎㅎ 방금전에 엄마한테 달 사진과 함께 문자가 왔어요. 밤이주는 감수성에 흠뻑 젖은 메세지였는데, 누나에게도 보여주고 싶어요. 이제 그리 멀리 있지도 않은데 자주 못 만나서인지, 엄마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정서적인 거리는 멀리 있는 거 같아요.

저도 보름달을 보러 잠깐 나갔다가 와야겠어요.  
누나도 놓치지 말고 달을 보길



2020년 11월 30일 (월) 오후 9:28, Hyo Min Gweon

<hmgweon@gmail.com>님이 작성:

안녕 방주야! 네가 보내준 라디오 들으면서 답 메일을 쓰고있어. 집중할때 듣기 좋은 음악들인 것 같아서 종종 자주 들을것같아, 고마워!  
어제 오후 약속때문에 나가기 전에 네 메일이 도착했길래 훑듯이 먼저 읽었어. 네 어머니께서 보내신 보름달 사진을 보고 운전하기 시작했는데 아나나 다름까 여기도 보름달이 떴더라. 어제 석양이 은은한 보라색이라 너무 예뻐는데, 보름달까지 곁들이니 동화삼파같았어.

다른 장소 같은 하늘 하니 생각나는게, 뉴질랜드에 갔을때 내가 일생동안 보지 못했던 별자리들을 보면서 뭐라 말할수 없는 기분이 항상 들었던게 떠오른다. 평생 익숙했던 북극성이 보이지 않는게 무서웠고,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별들이 몇십억년동안 지구의 양쪽 하늘 위를 매일 돌고 있었다는 게 새삼 경이롭고, 내가 굉장히 작게 느껴졌어. 지구가 둥글다는걸 그때, 진짜 체감한 것 같아. 뉴질랜드 남섬에서도 아주 남쪽에 있는 마을에 들렀을때 이불을 둘러싸고 몇 시간동안 밤 하늘만 보면서 아득해했던 기억이 나. 뉴질랜드의 그 밤하늘은 한국과 같은 하늘이었을까, 다른 하늘이었을까? 그러고보면 낭만은 참 복합적인 감정같다. 마냥 즐겁지만도 않고, ,경험에서 학습된 적당한 두려움과 설렘, 아련함이 곁들여진 감정.

월미도 해안선에 산이 보이지 않으니 네덜란드랑 비슷하단 생각이 드네. 구름도 그렇고. 사운드트랙용으로 생각하는 음악들을 며칠동안 계속 듣고있다가, 내가 셀렉팅하는 음악이 너무 편파적(?)인 느낌이 들어서 잠깐 쉬고 있었는데 네가 보내준 사진이 기분을 환기시켜준다.

그나저나 작업을 시작해보니 러닝타임이 진짜 만만치 않네. 덕분에 오랜만에 앨범 링크를 타고 타고 타면서 새로운 아티스트들을 계속 알아가는 중이야. 그 와중에 Steven Bamidele 라는 사람의 음악을 들었는데, 음악 하나가 너무 좋거든?

<https://www.youtube.com/watch?v=Dva-WKNR-zY>

사운드트랙에 넣을 음악들을 너한테 처음부터 공유하는건 지양하고 싶는데 이거는 그냥 공유할게. 아마 네가 월미도를 달리면서 느꼈던 기분이 이 곡과 비슷하진 않았을까 상상해봤어.

네덜란드는 오늘은 흐려서 달이 보이지 않을것같네.  
한국에서 차고 기우는 보름달을 마음껏 즐기길!







On Tue, Dec 1, 2020 at 12:04 PM **bang joo Kim** <juaobang@gmail.com> wrote:

오늘은 분당에 일이 있어서 차를 타고 갔다왔어요. 저한테는 초행길이었는데, 누나가 보내준 노래를 들으면서 달리니 좋았어요. 이후 노래는 유튜브에서 알아서 재생해주는 목록으로 놔뒀는데, 괜히 기분을 반영한 선곡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전에 누나가 보내준 메일을 읽은 뒤 분당으로 이동했는데 문득 누나가 예전에 분당에 살았다는 말이 기억났어요. 가끔 구글어스를 통해서 원래 살았던 곳을 관찰한다는 것도요. Steven Bamidele의 노래 + 분당이라는 장소 + 메일내용(특히 ,환기'부분)이 겹쳐지니까 재밌는 생각이 났어요. 누나가 구글어스로 관찰하고 싶은 곳과 시간을 정해주면, 제가 그곳에 가서 그 시간에 사진을 경험해보는 건 어떨까요? 마치 마우스 스크롤로 그곳에 이동하는 것처럼요! 추후에 제가 누나에게 사진을 보내줘도 되고 그곳에 대한 대화를 나눠봐도 좋지만, 그 이전에 누나가 상상하는 장소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곳은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날도 짧아지고요.  
황망하게 짧은 베를린의 겨울 태양이 생각나네요.

On Wed, Dec 2, 2020 at 9:54 AM **Hyo Min Gweon** <hmgweon@gmail.com> wrote:

안녕 방주야,

구글 어스로 내가 본 장소에 네가 직접 가본다는거지? 재미있겠다! 그럼 나도 반대로 네가 네덜란드에서 관찰하고 싶은 곳에 가서 네가 지정한 시간에 사진을 찍어 보내줘도 되겠다. (그런 곳이 있다면). 사실 요즘은 중앙아시아의 랜덤한 동네들 로드뷰를 보고 있는 중이야. 그 동네는 로드뷰가 활성화 되어있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라 한 스폿을 360도로 보는 것 빼고는 이동을 하기가 힘들거든. 그런데 그 제한적인 뷰가 이상하게 매력적이라 계속 돌아다니게 돼. 그걸 찍은 사람들은 또 누군지 궁금하고.

지금 잠깐 짧게 답장 보내지만 나중에 또 보낼게! 오늘 하는 리서치가 재미있을 예정이거든!

여기도 오후 네시 정도에 해가 이미 어둑어둑해.  
베를린과 비슷할거야. 섬머타임이 끝나지 않았다면 오후 세시부터 하늘이 어두워지는 셈이야.

한국의 차갑고 산뜻한 겨울 햇빛이 그리워진다.



2020년 12월 3일 (목) 오전 7:15, Hyo Min Gweon <hmgweon@gmail.com>님이 작성:

아까 아침에 너한테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친구 한명과 내가 사는 동네를 쪽 걸었어.

내가 사는 동네는 로테르담 남쪽에 있는 Tarwewijk라는 구역이야. 독일도 그런진 모르겠는데, 여기는 한국의 ,동‘같은 개념이 없고 대신 비공식적/공식적인 구역 이름이 있어. 주소에 쓰는건 아니지만 행정구역을 나눠 이야기할때 많이 쓰여.

로테르담 자우드 Rotterdam Zuid 는 네덜란드 안에서 험하기로 손꼽히는 지역이야. 그중에서도 내가 사는 Tarwewijk는 특히 악명이 높아. 로테르담이 항구 도시이다보니 오고 가는 물자들을 옮길 썩 노동력이 예전부터 필요했고, 네덜란드인들은 물론 네덜란드 식민지 출신 이민자들과 중동 이민자, 최근엔 동유럽 이민자들이 일종의 계도를 이룬 지역이야. 네덜란드어로 Tarwe는 곡류, 곡물인데, 말 그대로 곡류가 오고 가는 동네라는 뜻이야. Wijk의 어감에 부정적인 뜻이 섞여 있어서 요즘 네덜란드의 동네들은 Wijk 대신 Kwartier 를 더 많이 붙이더라. 너도 독일에 살면서 느꼈겠지만, 한국이나 미국 미디어에서 ,유럽‘이라고 했을때의 낭만적인 그런 동네는 사실 많이 없잖아.

얼마전에 누군가가 네덜란드에 몇 년 살다 왔다면 글을 쓴걸 읽었는데, 내가 아는 네덜란드와 너무 다르더라. ,네덜란드는 차가 별로 없는데 차도는 널찍해서 운전하기 너무 편하고, 어디를 가든 도시 조경이 아름답고, 안전하고 귀여운 나라‘ 라고. 같은 나라에 살면서도 경험하는건 각자 다를 수 밖에 없지. 내가 이곳에 이사오기 전 7년간 살던 헤이그의 Statenkwartier는 돈 많은 외국인들이 특히 선호하는 부자 동네였고, 그 사람이 묘사한 네덜란드와 비슷해. 하지만 Tarwewijk는 가난이 태생적으로 담고있는 우울함을 느낄 수 있는 동네야. 이곳에 산지 1년 남짓 되었는데 예전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보고 겪었어. 그렇다고 무슨 전쟁터나 갯단이 활보하며 총을 쏘는 곳은 아니지만, 내 멘탈이 약한줄도 모르고 마냥 보호받으며 살았던지라 여기 살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나는 그나마 나는 편이지. 이곳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곳일 뿐이라는 희망이 있으니까. 네덜란드의 복지는 일견 사람들을 공평하게 지원하는 것 같지만, 사실 너무나 뿌리 깊은, 계층 분리를 벗어나기 힘들어. 지구상 모든 나라가 그렇듯이, 네덜란드 역시 모두에게 평등한 나라가 아니야. 이곳의 이민자들, 그리고 이민 2세 3세대, 유럽을 떠도는 노동자들은 웬만해서는 이 동네를 떠날 수 없을거야. 나는 이곳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져.

아무튼 값싼 주거지를 이 동네의 서민/빈민에게 공급해야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이 동네에는 괴상한 유투피안 모더니즘 건축의 극치인 소셜 하우스가 많아. 내 친구와 오늘은 그런 건축물들을 찾아보며 한참 이야기를 나눴어. 르 코르뷔지에가 이상적이라 여긴 건축 스타일이 사실은 디스토피아적 계토에 최적화되어있다는 역설적이지. 한국도 한국 나름대로의 기괴한 건축물들이 많지만, 여기는 또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이상해서 흥미로워. 작업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오늘은 괜히 생각이 많아 그런가 너한테도 공유하고 싶었어.

글을 얼마간 쓰지 않다 보니까 내가 느끼는 것들을 표현할 어휘력이 모자라다.

아  
트  
포  
스트  
8  
to 10 PM

On Thu, Dec 3, 2020 at 1:13 PM bang joo Kim

<juaobang@gmail.com> wrote:

안녕 누나.

보내가 산책에서 본 건물들의 묘사를 들으니 독일에서 다녔던 동네들이 생각이 나네요. 포르츠하임Pforzheim 이라는 곳에 한 번 갔었는데, 독일에서도 자주 ,가장 못 생긴 도시‘로 꼽히는 곳이에요. 조금 낙후 된 곳을 가면 노른자색 회벽이 떨어진 네모난 건물들이 즐비해요. 독일은 세계대전 이후의 건축 양식이 상당히 통일되어 있어요. 저는 특히 그 오토토돌한 질감에 먼지가 내려앉은 노른자색 회벽이 너무 싫었어요. 어릴때는 잘 몰랐는데 이곳 저곳 옮겨 다니면서 살다보니, 사는 곳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생각해볼게 되요. 지형, 습도, 건물들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거 같아요. 그 요소들이 동네의 분위기를 만드는 건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분위기를 만드는지,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 거리를 거닐때면 간판들이 없는 거리를 상상하곤 해요. 그제야 건물을 만들때의 의도가 겨우 보이는 거 같아요.

누나가 저번에 슈투트가르트에 방문했을때 가보지 못한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다니던 학교 옆에 바이센호프 주거단지 weissenhofsiedlung이라는 곳이 있어요. 미스 반더에 로에, 르 코르뷔지에, 발터 그로피우스 등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든 주거단지예요. <https://de.wikipedia.org/wiki/Wei%C3%9Fenhofsiedlung> 처음 그곳을 방문 했을때는 우리가 현재 자주 보는 건축양식과 닮아있는 탓에 특별하다는 생각을 전혀하지 못했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자주 그곳을 방문해보니, 그리고 우연한 기회로 내부를 구경해보니, 그들이 꿈꿨던 건축과 사람의 관계는 지금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 하나 튀는 건물이 없으면서도 고저 차, 건물 사이의 공백을 보면서 한옥에서 느꼈던 기시감을 느꼈거든요. 마침 내부까지 잘 정리되어 있는 블로그를 찾아서 링크 보내요.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tudiounravel&log-No=221202445880&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누나가 구글어스로 보는 풍경을 제가 직접 가보는 제안을 드린건, 누나가 짧은 시간에 지금 하는 작업을 하는데 중간중간 어떤 ,자극‘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예를 들어본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대화, 떨어져 있는 거리에 대한 인지가 어떤 새로운 인터랙션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런 상상을 통해서 지금의 감각에서 떨어질 수 있는거 같기도 하구요. 어떤 제안도 도전해보면 좋을꺼 같아요^^

아  
트  
포  
스트  
9  
to 10 PM

2020년 12월 7일 (월) 오전 11:43, Hyo Min Gweon <hmgweon@gmail.com>님이 작성:

안녕 방주야! 답장이 늦어서 미안, 주말에 여기저기 일이 좀 많았어.

보내준 링크 너무 재미있게 읽었어. 포르츠하임을 찾아봤는데 그 못생김(?)이 상당히 걸려진 구글 결과가 나오더라. 아마 직접 가야 느낄 수 있겠지?

독일에 몇번 갈때마다 느끼는거지만 나도 그 독일 특유의 회벽을 좋아하지 않아. 이상하게도 순식간에 우울해지거든. 마치, '우리 독일인은 2차대전 이후에 소소하고 짜짜한 장식적 디테일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어, 구시대의 삶은 죄악감을 주거든, 아무튼 일단 대중 살아남고 보자' 라고 새마을운동 하는 그런 느낌이야.

금요일에 찍은 사진들을 보며 드로잉을 시작했어. 아마 이 드로잉들을 토대로 일련의 리피팅 패턴들을 만들게 될 것 같아. 지금 네가 진행하는 작업과 연관있는건 전혀 아니지만, 나한테 워낙 이 두 프로젝트가 평행선상에서 진행되고 있다 보니 이메일에 어쩔수 없이 이 이야기가 들어가네.

사운드 트랙에 쓰일 후보인 곡들은 차곡차곡 플레이리스트에 저장되고있어. 집에서 이어폰으로 듣는 것과 자동차 안에서 듣는 경험이 달라서, 나도 이래저래 장소를 바꿔가며 듣는 중이야. 아직 러닝타임에 못미치지만, 내가 상상하는 태양의 공전 궤도 / 혹은 너와 민선의 여행이 내 안에서도 점점 구체화 되고 있는 것 같아.

네 메일을 쭉 읽으면서 분당에서 고등학교때 살았던 동네를 구글어스로 찾아봤어. 상록마을 우성아파트에 살았는데 로드뷰로 보니까 갑자기 기분이 이상해지네. 이렇게 아파트가 빼곡한 곳이었나 싶기도 하고, 처음보는 곳인것 처럼 낯설다가도, 낯은 상가 건물을 보는순간 그 건물 안의 냄새가 갑자기 생각나. 지하에 슈퍼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한국 슈퍼 특유의 형광등 조명 색깔과 비슷한 냄새가 있거든. 네덜란드에서 맡을 수 없는 냄새야. 세제 냄새 같기도 하고, 정육점 냉장고 안의 쇠냄새 같기도 하면서, 과자 봉지나 티슈팩, 테이프에서 나는 그런 냄새. 2003년 이후로 저 동네에 가본 적이 없는데, 구글맵은 2020년에 업데이트가 됐네. 아마 네가 저곳에 가면 내가 느끼는것과 전혀 다른 감정을 느끼겠지? 추억보정이 이런거구나 싶다.

[https://earth.google.com/web/search/South+Korea,+Gyeonggi-do,+Seongnam-si,+Bundang-gu,+%ec%a0%95%ec%9e%90%eb%8f%99/@37.36512641,127.11476612,69.47542572a,0d,60y,195.79007157h,80.49295055t,0r/data=CigiJgokCUP00RMgxEJAEee15otVdUJAGYi\\_kEf9819AicjcCYyBIF9AIhoKFjI5VXF3Y0otekJfNwVzcGFMR2I3aHcQAq](https://earth.google.com/web/search/South+Korea,+Gyeonggi-do,+Seongnam-si,+Bundang-gu,+%ec%a0%95%ec%9e%90%eb%8f%99/@37.36512641,127.11476612,69.47542572a,0d,60y,195.79007157h,80.49295055t,0r/data=CigiJgokCUP00RMgxEJAEee15otVdUJAGYi_kEf9819AicjcCYyBIF9AIhoKFjI5VXF3Y0otekJfNwVzcGFMR2I3aHcQAq)

아 그리고 이 이메일을 쓰다보니 2년 전쯤 방문했던 벨기에의 한 도시가 기억나.

Louvain-la-Neuve 라고 브뤼셀 근교에 있는 대도시인데, 서울대 캠퍼스랑 너무 비슷하고 진짜 특출나게 못생긴 도시였거든. 걸어다니는 내내 내가 지금 관악에 있는건지 벨기에에 있는건지 헷갈릴 정도였어. 일행 모두 이렇게 못생긴 동네는 처음왔다고 허를 내두르는데 나혼자 추억에 잠겼던 생각이 나네. 그중 미대 건물 생각이 아주 많이 났던 건물을 방금 구글 어스에서 찾았어. 스크린샷도 함께 보낼게.

<https://earth.google.com/web/search/Ottignies-Louvain-la-Neuve/@50.66782676,4.62134101,142.26546126a,0d,60y,350.41258708h,87.08324866t,0r/data=CigiJgokCdwtmNP8rkJAEZolG-Bh8rkJAGW8p7s6ax19AladxnNkVx19AIhoKFIFWMTdJd3N3aWdXTHRhaXpXcjEaUEQAq>



2020년 12월 10일 (목) 오전 12:29, bang joo Kim <juaobang@gmail.com> wrote:

누나 안녕하세요.

누나의 묘사한 낯은 상가 건물이야기를 듣고 저는 잠실의 상가가 생각났어요. 이제 서울에서 아파트 단지 근처에 있는 상가건물을 찾기로 조금 어려운 거 같아요. 죽일에서 돌아온 작년말 부터 올 초까지 민선이의 본가에서 한동안 지냈거든요. 잠실에 있는 올림픽선수촌 아파트였는데, 꽤나 큰 아파트 단지가 88년도에 건립된 상가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듯한 형태예요.

오늘 시간을 내서 민선이와 상록마을을 우성아파트에 다녀왔어요. 유튜브에서 랜덤 플레이를 켜놔는데 우연히 Steven Bamidele 노래가 나왔어요. 날씨가 맑아서 차 유리에 와이퍼 자국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차도 옆에 가로수에 잎사귀는 이미 다 떨어졌고, 찬공기가 아주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느낌이었어요.

상록마을의 정동마트는 누나가 묘사한 그대로였어요. 글을 읽었을 때도 냄새가 느껴지는 듯했는데, 직접 가보니 어떤 말인지 너무 잘 알겠었어요. 정동마트 뒤편에는 꽤나 큰 주차장이 있었어요. 내려가는 통로는 세 개였는데, 골차를 가지고 내려갈 수 있는 내리막 길과 그 옆의 엘리베이터, 상가 안의 계단.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는데, 내리자마자 골차에 무, 배추, 양파 등 하중이 많이 나가는 채소들이 보관/판매/이동이 동시에 가능한 형태로 디스플레이 되있는게 눈에 들어왔어요. 모든게 효율성에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독일에서는 ALDI나 LIDL처럼 조금 저렴한 슈퍼에서 이런 형태를 발견할 수 있었던 거 같아요.

이곳을 경험할 다른 방법을 생각하다가, 내일 독일에서 오는 손님에게 대접할 음식을 이곳에서 구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영수증 첨부했어요. 하하 들어올 때와 다른 출구로 정동마트를 나와서 천천히 다른 층을 둘러봤어요. 이런 형태의 상가건물에서 쉬이 찾을 수 있는 꽃집과 떡집, 작은 카페, 미용실, 인테리어, 부동산, 작은 의원 등이 눈에 들어왔어요. 코로나를 피하지 못한건지 몇몇 가게는 문을 닫아있었고, 분당의 치열한 교육열을 반증하듯 3층에는 학원이 있었어요. 상가에서 요즘 찾아보기 쉬운 예약제 공방도 있었어요.

너무 익숙한 형태의 상가였지만 누나가 묘사한 그림을 떠올리며 경험해서인지 굉장히 낯설게 느껴졌어요. 독일에서는 오히려 가게마다 다른 디스플레이 방식을 구경하면서 재미를 느꼈던거 같은데, 이곳에서 생활이 너무, 생활'이 되다보니 거리두기에 실패하고 있었던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내일은 오늘 구입한 식재료로 나름의 요리를 할 것 같아요. 덕분에 재밌는 경험을 했어요. 아주 멀리있는 거울을 통해 나를 바라본 듯한!

12월 14일 오후 10:44, Hyo Min Gweon <hmgweon@gmail.com>님이 작성:

방주야 안녕, 페이스북임에서도 말했지만 사진을 보자마자 내 기억에 낀 먼지를 털어버린 것처럼 일순간에 상록마을에서의 기억이 되살아났어. 저 슈퍼마켓에 굉장히 희한한 내리막길이 있었던 것도 잊고 있었는데 네 덕분에 생각이 났네. 한국 상가들의 간판이 정말 파워풀하다는 것도 오랜만에 실감했어. 지금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신도시는 그나마 간판 디자인이 통제가 약간이라도 되는 편인데, 저긴 정말 적자생존 정글같다.

냄새가 기억의 커다란 매개체라는걸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하고 살다가도, 이런 계기로 인체의 감각이 얼마나 섬세한지 실감해. 오늘 아침에 헤이그에 새로운 스튜디오 스페이스를 보러 갔다가 그 동네 주변을 걷는데, 네덜란드의 낙후된 동네 특유의 거친 나무와 벽돌 질감 냄새가 나서 거길 걷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 동네를 추억하는 '느낌이 들어'.

신기해. 가끔씩 사람들은 본인이 경험하지도 않은, 상정된 공간'에 스스로를 투영하며 노스텔지어를 느끼잖아.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가짜 기억인 셈이지만, 나는 그런 공감각적 상상력이 내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든다고 생각해. 저번에 너랑 말했던, 생각이 납작해지는 '순간'은 그런 가짜 기억들이 사치로 느껴질 때겠지. 그런 상황이 살면서 웬만하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부터는 술술 음악을 대강 배치하는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야. 뚜렷한 서사를 만드는건 절대 아니고, 그냥, 이 음악 뒤에 저 음악이 나오면 듣기 좋겠다' 정도로 느긋하게. 골라놓은 음악들을 들으면서 여러가지 생각이 들어. 내가 우주정거장에서 자전하는 상상을 하기도 하고, 너와 민선이가 대화 하거나 휴게소에서 간식을 먹거나, 아무 말도 없이 도로를 바라보며 운전하는 순간 같은 것들. 너희가 운전하는 곡면의 반대편을 천천히 유영하는 태양을 바라보는 내 모습 같은 것. 그런 여러가지 생각들의 리듬과 텍스처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고 싶어.

시간은 빠듯하지만.

### 적극적인 기다림

ㅂ은 대한민국의 가장 서단인 충청북도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에서 일몰을 보고, 최동단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석병리까지 이동하여 일출을 보는 행위를 촬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에는 8시간 정도, 해가 뜰 때까지는 15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그는 ㄱ에게 동행을 부탁했다.

ㄱ은 동행의 이유가 궁금했다. ㅂ은 차로 이동하며 이어폰으로 흘러나온 음악을 함께 따라 부르거나 그간 있었던 일들, 생각했던 것들에 관해 대화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ㄱ은 그 말을 듣고 자신이 겪었던 불면의 밤 중 하나를 떠올렸다. 이 시간에 깨어 있는 것이 나 혼자인 듯했던 밤, 과거의 자신에 관한 사소한 후회가 감싸던 밤, 핸드폰을 들어 흘러가는 시간을 조용히 바라보던 밤. 그는 그 밤이, 어색한 자리에 초대된 것처럼 불편했고 무엇보다도 외로웠다. 함께 밤을 지새울 친구가 필요하다던 ㅂ의 말이 어렵듯이 이해되기도 했다.

ㅂ은 해가 지고 다시 뜨는 지구의 자전 속도를, 한국이라는 제한적인 지역 안에서 이동하여 가시화시키고 싶다고 했다. 또한 이것이 할 수 있는 한 가장 빠르게 일출을 맞이하는 행위이지 않겠냐고 말하기도 했다. ㄱ은 엄마의 퇴근을 기다리며 버스 정류장까지 나와 있는 아이를 상상했다. 집에서 만화 보며 소파에 누워있어도 엄마는 온다. 그러나 아이는 고사리 손으로 외투를 여매고 발을 동동 구르며, 엄마가 타고 있을 버스가 도착하기를 하염없이 기다린다. 최선의 적극성, ㄱ은 그러한 적극적인 기다림에 동참하고 싶어 졌다.

### 해가 있는 시간의 동행자

ㅂ의 말에 따르면, ㅂ/ㄱ은 해가 없는 동안 깨어있다. 운전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이야기를 나눈다. 장장 15시간 동안 들은 노래의 재생목록은 네덜란드에 있는 ㅎ이 만들어 줄 것이라고 했다. ㅎ은 3-4년 전쯤, 본인이 우주여행을 다녀온다는 상상을 바탕으로 노래를 목록화한 경험이 있다. ㅂ/ㄱ은 ㅎ을 졸라 그 목록을 얻어내어 한참 듣고 다녔는데, 그때처럼 ㅎ은 한국의 일몰부터 일출까지의 시간, 그동안의 여정을 그리며 노래 목록을 만들기로 했다.

ㅎ은 긴 러닝타임의 재생목록을 만들며 ㅂ과 메일을 주고받았다. 그들은 각자가 살고 있는 나라 사이의 거리에 관하여, 서울보다 하루 늦게 뜬 로테르담의 보름달에 관하여 이야기했다. 구글어스(earth.google.com)로 세계 곳곳의 풍경을 찾아보는 게 ㅎ의 취미라는 걸 안 ㅂ은, ㅎ이 학창 시절 살았고,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했던 분당의 한 상가를 직접 방문하여 그 사진을 보내주기도 했다. 이메일 속 그들의 대화와 행위는, 그들 사이의 가까운 심리적 거리를 실감하는 동시에 먼 물리적 거리를 재인식하며 이어지는 것 같았다.

ㅂ/ㄱ의 여행에서 해는 처음과 끝을 제외한 긴 시간 동안 등장하지 않는다. 그 시간에, 지구 반대편 ㅎ이 있는 곳의 해는 밝다. ㅂ/ㄱ은 어두운 도로를 바라 보고, ㅎ은 햇빛 쏟아지는 창을 바라보다가 자신의 일에 몰두한다. ㅂ/ㄱ은 해있는 시간의 ㅎ이 하나 하나 고른 음악을 들으며 이동하고, ㅎ은 ㅂ/ㄱ의 이상한 밤 여행을 떠올리며 피식 웃는다. 지구 반대편에 각각 깨어 있는 ㅂ/ㄱ과 ㅎ은 다른 풍경을 보지만, 서로를 상기하며 같은 시간을 공유한다. 그러므로 이 여정에는 ㅎ도 함께이다. 실상 ㅎ은 재생목록을 만들어 달라는 ㅂ의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ㅂ보다도 먼저 ㅂ의 동행자가 되었다.

### 해가 뜨고 지는 것보다

ㄱ이 궁금했던 것은 이 여행의 이유다. ㅂ은 해가 자취를 감춘 사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여 지구의 자전을 증명하려는 것일까? 지구가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해가 지고 뜨면서 다음 날이 온다는 사실, 이러한 사실은 굳이 증명하지 않더라도 모두가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는 잠에서 깨어 오늘이 며칠인지 확인하고, 하루하루를 구분해 일정을 짜며 살아가지 않던가. ㅂ/ㄱ/ㅎ이 함께 하려는 이 행위는, 공고한 사실을 굳이 증명하기 때문에 세삼스럽게 떠나는 희극인들의 로드무비 같다. 그러나 공고한 사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ㄱ은 ㅂ이 계획하고 있는 우습기까지 한 이 여행이 어떤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에 균열을 내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ㅂ은 한국의 최서단이라고 검색하여 찾아낸 ‘충청북도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라는 곳에 가본 적이 없다. 역시 최동단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석병리’ 또한 이번에 처음 가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계획은 그저 인터넷에 명기된 검색 결과에 따라 진행된다. ㅂ은 이것이 우주를 상상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상상의 하나라 밝혔는데, 이 여행에 포함하는 데다가 해가 지고 다시 뜰 것이라는 믿음 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떠올릴 수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ㅂ에게는 이 또한 행위로 내뱉어지지 않은, 머릿속에서만 북 치고 장구 치는 상상이다.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상상’을 몸으로 다시 그려보기 위해 ㅂ은 일단 떠나자고 한 것일까.

ㅎ은 ㅂ과 주고받은 메일에서 뉴질랜드의 북극성 없는, 그러나 일생동안 보지 못했던 별자리가 가득했던 하늘에 관해 기술하며 ‘지구가 둥글다는 걸 그때 진짜 체감했다’고 말했다. 더하여 그때의 감정은 ‘마냥 즐겁지도 않고, 경험에서 학습된 적당한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것이라고도 했다. 또 ㅂ은 오로라를 보러 노르웨이의 트롬쇠르 떠났던 ㅂ/ㄱ이 오로라를 보지 못했음에도 ‘이걸로 충분하다’고 대화했던 때가 기억나냐고 ㄱ에게 되물기도 했다.

‘충분했지’라고 대답한 순간, ㄱ은 이 여행에서 해가 뜨고 진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음을 확실히 알았다. 심지어 이제는 그날부터 해가 영영 뜨지 않아서 며칠 동안 밤이 지속된다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다. 그런 안도감으로, ㄱ은 ㅂ/ㅎ과 도로를 달리며 더 즐겁게 수다 떨고 마음 놓고 노래도 부를 것이다.



유 캔트 풋 아웃 디스파이어 플레이리스트

I

- 현경과 영애- 그리워라  
Herbie Hancock- Maiden Voyage (Rudy Van Gelder Edition)  
Bombay Bicycle Club - Lights Out, Words Gone  
Steven Bamedele- You Can't Put Out This Fire  
Bearcubs- Underwaterfall  
양희은 - 세노야 세노야  
Haulm- Settle  
Rudi Stephan - Ich will dir singen ein Hohelied, 6 Gedichte für  
Sopran und Klavier: I. Kythere  
Jordan Rakei- Eye To Eye  
Jordan Rakei - May  
Mike Viola - Rowing Song  
C Duncan- Architect  
현경과 영애- 나 돌아가리라  
Jon Hopkins- C O S M (Daniel Avery Remix)  
James Blake - Don't Miss It  
Berliner Philharmoniker & Herbert von Karajan - R. Strauss:  
Metamorphosen For 23 Solo Strings

5분 공백

II

- Herbie Nichols - 2300 Skiddoo  
Myd - The Sun  
Colouring - Heathen

5분 공백

III

- Brad Mehldau - John Boy  
Klangstof - Doolhof  
Bekon- Cold As Ice  
Cautious Clay- Blood Type  
Brad Mehldau - Don't Be Sad  
John Grant - Outer Space  
Fleet Foxes - Meadowlarks  
Brad Mehldau - At The Toolbooth  
Brad Mehldau - Highway Rider  
Jordan Rakei - Say Something  
Jadu Heart - Late Night  
Brad Mehldau - The Falcon Will Fly Again  
Seals and Crofts - Stars  
이온콘텐츠- 사물놀이 굿거리  
DJ Shadow - The Number Song  
Brad Mehldau - Now You Must Climb Alone

Brad Mehldau - Walking the Peak  
Klangstof - Death09  
Brad Mehldau - We'll Cross the River Tonight  
Rudi Stephan - Ich will dir singen ein Hohelied, 6 Gedichte für  
Sopran und Klavier: VI. Das Hohelied der Nacht  
10분 공백

IV

Bobby Womack - Fact Of Life/He'll Be There When The Sun  
Goes Down Medly  
Brad Mehldau - Capriccio  
Wim Sonneveld - Het Dorp (Single Version)  
Marianne Rosenberg - Ich Bin Wie Du  
Thelonious Monk - 'Round Midnight  
Daft Punk - Giorgio by Moroder  
Giorgio Moroder - From Here to Eternity  
Tune-Yards - Let's Begin Again (NirNot)  
Brad Mehldau - Sky Turning Grey (For Elliott Smith)  
Daft Punk - Within  
Daft Punk - Instant Crush (feat. Julian Casablancas)  
Daft Punk - Lose Yourself to Dance (feat. Pharrell Williams)  
Brad Mehldau - Into the City  
Jadu Heart - Harry Brompton's Ice Tea  
Queen - Innuendo

5분 공백

V

Cliff Martinez - First Sleep  
Safetalk - Universal  
Brad Mehldau - Come With Me  
The Beach Boys - Vegetables (Remastered 2001)  
Mac DeMarco & Myd - Moving Man  
Underworld - Blueski  
Josef Salvat - Open Season  
MAALA - Drift  
Childhood - Californian Light (Okumu VIP)  
Eugène Ysaÿe - Sonate pour violoncelle seul Op.28 : I Grave  
[Lento sostenuto] (Anssi Karttunen 연주)  
Scotch Mist - Cold Feet  
현경과 영애 - 참 예쁘네요  
Tim Atlas - Compromised (Christoff Remix) (feat. Christoff)  
Maribou State - Manila  
Bipolar Sunshine - Deckchairs On The Moon  
Schubert - Impromptus, Op.90 D. 899: No. 1. In C minor  
Allegro molto moderato (Ivan Klansky 연주)  
Radio Head - Burn the Witch  
Justice - Safe and Sound  
Justice - Pleasure  
Justice - Alakazam!  
Justice - Fire

5분 공백



VI

Mozart / Orpheus Chamber Orchestra - Bassoon Concerto in  
B-Flat Major, K.191 - 2. Andante Ma Adagio  
Nicole - Ein bisschen Frieden  
Goldband - Ja Ja Nee Nee  
The Knife - Heartbeats

Nicolas Jaar - Space Is Only Noise If You Can See  
Garden City Movement - Passion is a Dying Theme  
Justice - Chorus  
Justice - Randy  
Crosby, Stills, Nash & Young - Out House  
Michael Kiwanuka - Living In Denial  
Harry Belafonte - Jump Down, Spin Around  
Baths - Maximalist  
Men I Trust - Lauren  
Rome Fortune & Toro y Moi - Alright  
Giorgio Moroder - E=MC2  
Crystal Castles - Char  
Why These Coyotes - Dance Around the Fire  
김복인 - 꿈의 가로수길 (온스테이지 라이브 버전)  
Sea (Peoples) - Powers

Tycho - Slack  
Altın Gün - Ordunun Dereleri  
half-alive - Maybe  
The Boomtown Rats - Passing Through  
Nicolas Jaar - Keep Me There  
Nicolas Jaar - Problem With the Sun  
Jon Gurd - Lion  
Billy Joel - Pressure  
Susanne Vega - Tom's Diner  
Harry Belafonte - Scarlet Ribbons (For Her Hair)

Cliff Martinez - Is That What Everybody Wa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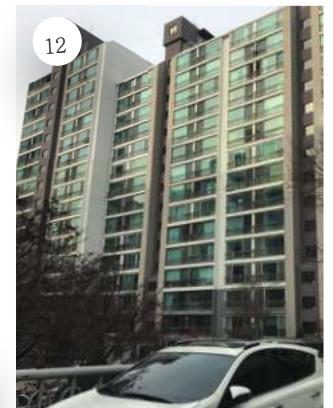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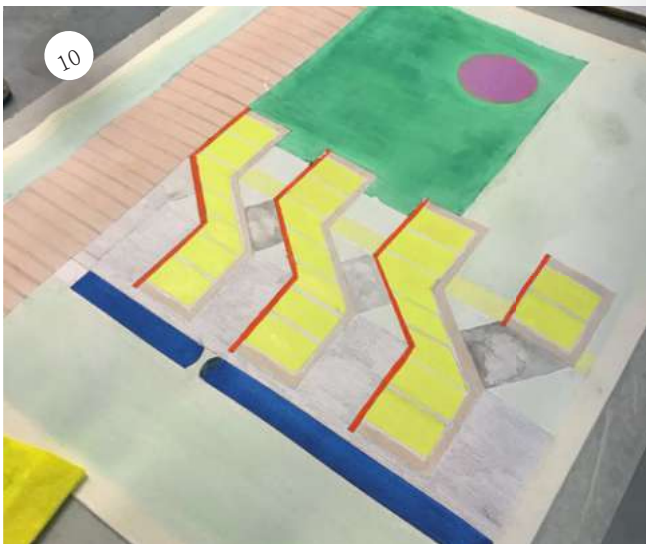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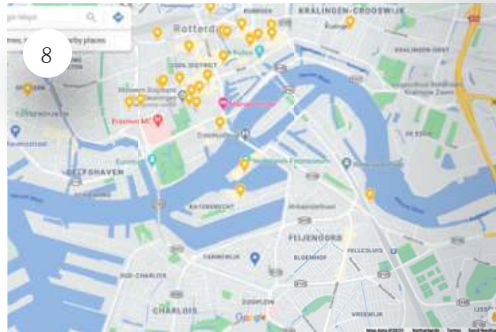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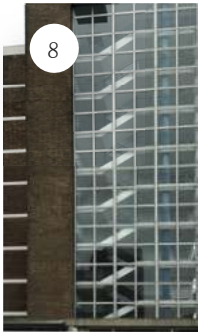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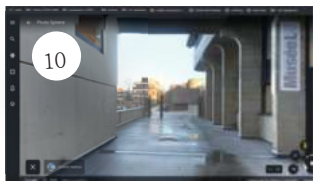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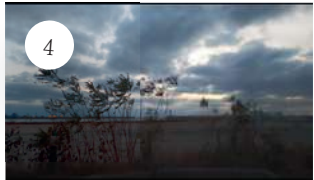
5분 공백

VII

Iron & Wine - Faded from the Winter  
The Shins - The Past And Pending  
Washed Out - Face Up  
Yeastayer - Sunrise  
Fellini Fellin - Come to the Fore  
Fleet Foxes - Can I Believe You  
신혜철 (N.E.X.T) - 먼 훗날 언젠가  
Color Repoters - End of Seas  
YesYou - Change Is Gonna Come (feat. Damon Trueitt)  
Vangelis - Titles (from Chariots Of Fire OST)  
Poolside - We Can Work It Out  
Fleet Foxes - Sun it Rises  
현경과 영애 - 바다에서  
Mozart / Orpheus Chamber Orchestra - Serenade in B-Flat  
Major, K.361 "Gran Partita" - 3. Adagio  
신혜철 - 그저 걷고있는거지 (정글스토리 OST)  
Brad Mehldau - Always Departing  
Brad Mehldau - Always Returning  
Tears For Fears - Everybody Wants To Rule The World









© www.ohhora.org

협업자: 권효민, 이민선

책자 디자인: 채인

